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 상실... 징역형

대법원, '지인업체 특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확정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건식 김제시장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후배의 평소 친분관계, 김제시가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경위·방법,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후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 또는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고 이로 인해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시장의 행위가 정무적 판단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 시행하라"

29일 전주 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기사 1일2교대제 즉각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기소된 고향 후배 정모(64)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관련해 고향후배 정씨가 운영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 보호소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환경 토양 환경 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2013년 김제시가 정씨 업체의 토양 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시장은 가격이 저렴한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구매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품을 구입했고, 토양 개량제도 중복해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 시장이 시민의 위임으로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어 예산을 집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원 사업은 가축 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인데 명분과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해 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 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과 농

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제시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제시가 업체로부터 가축 면역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 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가축 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완산체련공원 산악자전거 연습장 조성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전주시가 중인동 완산체육공원에 산악자전거 연습장을 조성했다.

전주시는 올해 총 2,200만원을 투입해 중인동 완산체육공원 농구장 뒤편 여유부지에 약 2,000㎡ 면적의 산악자전거 연습장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악자전거 연습장이 조성되면서 자전거동호회원들과 청소년들이 산악자전거 기술을 습득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악자전거 연습장의 총 주행길이는 150m정도이며, 자전거를 타고 뛰어오르거나 활강할 수 있는 높이 1.2m~2m 정도의 점프대 4개소가 설치됐다. 또,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균형과 조향기술을 연마

할 수 있는 뱅크턴 시설 3개소, 지면에 요철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하나뿐 중심이동과 균형감각을 익히는 펄핑트랙도 설치됐다.

완산체육공원 산악자전거 연습장은 자전거를 즐기길 원하는 전주시민이라면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해야 한다. 특히, 부상의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본인의 주행능력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체육공원 산책로 이용시에는 자전거에 흙이 묻어 나가지 않도록 조치 후 이동해야 한다.

완산체육공원 산악자전거 연습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56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자전거 타고 유람하듯 돌며 차량 털어

전과 16범인 김모(40)씨는 지난 8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는 담당했다. 출소할 지 1달여 만에 경북 구미의 보호관찰소를 자전거를 타고 뛰쳐나왔다.

가축과 연관이 끊기지 오래였다. 갈 곳이 없어 내키는 대로 자전거를 달렸다. 첫 범행은 경북 칠곡군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다. 시골은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에도 좋았다.

지난 9월16일 새벽 칠곡군 지천면 한 시골마을에 주차된 차량에서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속식은 PC방이나 여관에서 해결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시골마을로 향했다. 이렇게 1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잡가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면 바꿔 타고 움직였다. 이런 방식으로 절도와 이동을 반복한 거리가 500km에 달한다. 경북 구미시-칠곡군-김천시-충북 영동군-전북 무주군-진안군-전주시-

완주군-익산시-김제시 등 3개 도를 자전거를 타고 유람하듯 돌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끈질긴 추경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PC방에 있었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무주경찰서는 29일 절도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운영

전주시 '마을세무사'들이 골목 구석 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관련 고민을 해소해 주고 있다.

시는 8개 권역 26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를 운영,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처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주차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구청 합동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일반 화물 및 전세버스 20만원, 개별 화물 10만원, 용달 화물 5만원 등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노후주거지 무인택배함 설치

팔복 추천·승암 새뜰마을에... 불편해소·범죄 사전차단 기대

전주시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에 택배를 받고 맡길 수 있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면 택배의 분실 및 파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이 추진중인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에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팔복, 승암 새뜰마을 주민협의회의

관리로 운영되는 무인택배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새뜰마을 사업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주민들이 택배 신청시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물품 배송과 함께 이용 주민에게 배송일시와 인증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문자가 발송된다. 택배회사로부터 문자를 수신한 이용 주민은 무인택배함에서 고객 인증 후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시는 주민 호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주민들이 무인택배함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무인택배함 설치로 직장생활로 인해 택배 수령이 어려운 일반 단독주택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뜰 무인택배함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